

##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日本 石川縣 金澤 21C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

### A Study on Public Property of the Regional Museum Design

- Focused on th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Ishikawaken in Japan -

손광호\* / Son, Kwang-Ho

김강섭\*\* / Kim, Kang-Sub

#### Abstract

Th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as a regional public culture facility is the place where it is possible to think over the roles and meanings of a museum.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nformation for exploring a desirable direction of the design of a regional museum by analyzing the architectural meanings and public property of th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In addition, we arranged the roles and meanings of a regional museum and the concept of the public property in architecture. We also analyzed the architectural quality and the expression of the public property in this museum, as well as the value and meaning of a museum through field research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museum breaks with the existing stereotyped idea to be a space open to the citizens. It secures a wide public space and provides the convenience of access and every facility for citizens. Second, the floor plan is divided into the interchanging area for citizens and an exhibition area; the outskirts of the inside of the museum are planned to be used free of charge for an interchanging space of citizens as a public-owned space of citizens. Third, the public-owned space of citizens includes a citizen exhibition hall, an art library, a kids studio and rest space, which are all designed for everyone to enjoy freely. Last, the exterior shape of the museum is simple but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s. It has a unique shape showing the local identity, and its most special properties are the convenience of access, introduction of a free space inside, and security of a huge space for children and citizens.

키워드 : 공공성, 미술관건축, 개방성, 지역문화시설

Keywords : Public Property, Museum Architecture, Openness, Regional Culture Facilit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건축은 삶이고 문화이며,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축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공공의 삶과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는다. 건축이 삶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공건축물의 모양새, 쓰임새는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꼴을 규정하며, 우리 시대가 어떤 공적인 삶을 허용하는지를 보여준다.<sup>1)</sup>

그리고 지역문화시설 중 미술관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교양의 확대, 교육의 향상을 위한 사회 교육적 기능, 사회 공여를 위한 공공적 장소이다. 일본 이시카와켄 카나자와시의 시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며, 시민에게 열린 공공시설이다. 또한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하나의 건축물이며,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시설로서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의 건축적 의미와 특성, 공공성을 평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지향적이며 공공성을 가진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자료와 합리적인 방향설정제에 이바지함이다.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일본공업대학 건축학과 특별연구원, 공학박사

1) 강내희, 건축가의 사회적 위치, 이상건축 2002.06, p.166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논문, 각종 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역 미술관건축의 역할과 의미, 공공성의 개념, 건축의 공공성 개념 등을 선행 고찰하였다. 그리고 미술관의 공공성 평가 및 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의 건축개념과 특징, 공공성 표현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미술관의 가치와 의의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장조사는 2005년 8월 24일, 25일에 실시하였다.

## 2. 지역 미술관건축의 역할과 공공성

### 2.1. 지역 미술관건축의 역할과 기능

지역문화시설은 문화적 편의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이러한 문화시설 중 공연, 전시, 행사, 교육프로그램 등의 문화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중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그 중 미술관은 커뮤니케이션 매체<sup>2)</sup>이며, 예술에 대한 정보와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미술관의 역할은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문화 콘텐츠의 보급, 문화 활동의 참여로 인한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 정보 검색 및 이용, 지식습득의 교육적 기능, 지역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 활동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주고, 사회 구성원의 교육적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개인의 삶을 질을 높여 정신적으로 윤택하게 하여 사회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창조적 역할(creative role)을 한다.

미술관은 관람객과 작품의 관계를 설정해 주며, 관람객과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작품에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술관은 각종 전시품을 통해 관람객과 대화를 갖는 것과 동시에 전시공간은 작품의 성격과 가치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여 관람자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작품을 감상하고, 관람객 스스로 작품이 주는 메시지와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발적인 경험을 창출한다. 또한 연극 공연이나 음악회 등이 열릴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공간이다.

2)박정태·김용승, 최근 미술관 공간구조의 다양성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12호(통권158호), 2001.12, pp.29~30, 미술관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중추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술관은 현재의 관람객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술관을 방문할 관람객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유희물과 유산을 보존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이다.

## 22. 건축의 공공성

### (1) 공공성의 정의

우리가 속한 사회적 공간은 공공성을 가지는 만큼 이것들이 어떤 사회적 상상력에 의해 사유되는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공공성의 정의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내리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일정한 작용과 범위를 갖는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공공성은 "최적의 의사소통상태"로 보고 이를 통해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sup> 이들의 기본적인 정의를 종합해 보면, 모두에게 관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통해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2) 건축의 공공성

건축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 척도이며 기준이다. 그 시대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 건축은 이러한 변화를 지속시키며, 도시의 생명력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산물이자 행위이다. 건축은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이며, 특히 공공 건축물은 공공성 논의의 핵심이 된다. 건축에 있어 공공성의 정의<sup>4)</sup>는 구체적인 건축적 공간을 통해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등을 높여 체류성을 획득함으로써 공공의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건축의 공공성은 접근성과 연계성, 개방성과 쾌적성의 증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의 궁극적 목표는 체류성을 높이고 열린(개방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개방성, 체류성, 머무름의 증가가 공공성의 형성과 동일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개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평가와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공간적인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계획요소별로 정리하였다.(표 1 참조)

<표 1> 공공성 분석을 위한 기준(틀)

구분		계획요소	공공성의 구분
공간적 측면	외부공간	입지 및 배치 접근성(연계성) 외부공간구성	접근성, 연계성
	내부공간	평면구성 공적공간의 확보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형태적 측면		경관적 요소(측면) 투명한 외피	연계성, 개방성(투명성)

## 23. 건축가의 역할과 공공성 실현

사람들의 거주와 이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과 그 집합체로서 물리적 건조 환경들은 거주자와 주변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3)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2005.2 p.35

4)최기원, 앞의 책, p.37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혹은 공공성을 띤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사람과 건물과의 관계에 있어 해당 건축물과 거주자의 관계는 물론 주변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사람들에게 적합한 삶의 형태를 창조해내고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건축가는 단순히 주어진 대지에 적절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건축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일종의 사회적 코디네이터(social coordinator)<sup>5)</sup>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의 공공성 실현은 사회통합적인 행위이며, 공적 가치의 실현이다. 건축의 공공성은 건축의 의사소통의 차원을 높이고 건축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공공적 혜택을 제공한다. 건축가의 작업은 삶을 기획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적합한 삶의 형태를 창조해내는 일이니 만큼 건조 환경 생산의 실질적 설계와 대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건축가에게는 건축의 공공성 실현에 책임이 있으며, 건축이 속한 사회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해안이 요구된다.

### 3.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의 건축개념과 건축적 특성

#### 3.1. 건립동기

일본의 많은 미술관이 직면한 문제는 관객 수의 감소이다. 10년간 전국 미술관, 박물관의 입장자 수가 1,000만명 감소하였다는 숫자는 명확하게 계몽의 관으로서 일방 통행하여 “작품=object”를 보여주는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매스미디어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시각정보의 증가와 미술관의 권위성과 작품의 보존이라는 명목의 이유로 외부로부터 차단되어진 폐쇄성이 예술 애호가와 일반 관객의 발걸음을 멀어지게 한 원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볼 때,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은 새로운 개념을 실천한 모범적 사례할 수 있다. 카나자와 대학 부속학교의 이전 장소에 각종 지역 미술단체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미술관의 건립을 희망하였다. 또한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은 21세기라는 커다란 전환점에서 새로운 지역 만들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문화 창조와 지역 활성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sup>7)</sup> 1994년 미술관구상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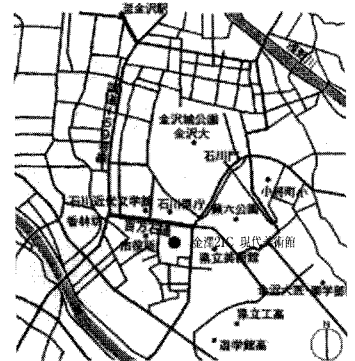
가 개최되었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착공되었다.

#### 3.2. 입지 및 배치

이 미술관은 SANAA<sup>8)</sup>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현 대지는 카나자와대학 부속 학교의 이전 부지이다.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은 시(市)의 중심부에 위치한 시민 문화의 복합시설이다. 북측으로는 카나자와역, 카나자와대학, 켄록코공원(兼六園) 등이 있고, 동측으로는 현립 미술관이 있다.

또한 서측에는 카나자와 시청사가 있다. 미술관 부지는 3면이 도로 접하고 있으며(북측 : 30m, 서측 10m, 동측 20m), 남측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그림 1, 사진 1 참조)

이 미술관의 출입구는 4개이며, 부지의 360도 어느 곳에서도 등근 보행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즉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하주차장으로의 차량 진입은 카나자와 시청사의 인접도로에서 이루어진다.(그림 2 참조)



<그림 1> 카나자와 21C 현대 미술관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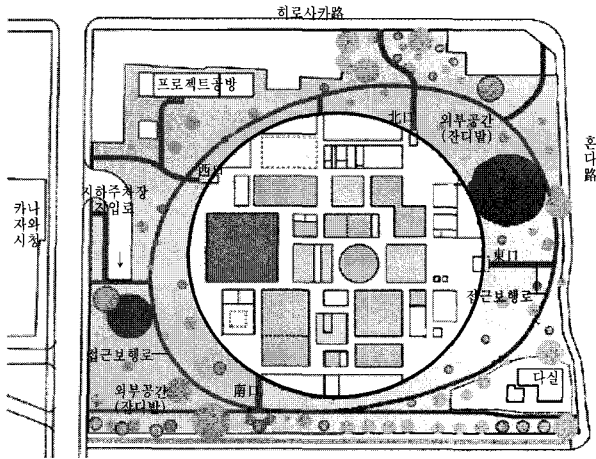
<사진 1> 카나자와 21C 현대 미술관의 주변현황

8)SANAA는 妹島和世(Kazuyo Sejima, 1956년생)와 西澤立衛(Ryue Nishizawa, 1966년생)의 공동체이며, 대표작으로 「國際情報科學芸術アカデミーマルチメディア工房」(1996년), 「熊野古道なかへち美術館」(1997년), 「飯田市小笠原資料館」(1999년), 「ディオール表参道」(2003년) 등이 있다. 「金澤21世紀美術館」을 통해 제9회ヴェネツィ아建築ビエンナーレ展示部門金獅子賞, 毎日芸術文化賞을 수상하였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スタッツシアター」(오ランダ, 2006년완료예정), 「트레드美術館ガラスパビリオン」(아메리카, 2005년완료예정), 「뉴뮤지엄」(아메리카, 2007년완료예정), 「바렌시아近代美術館増築」(스페인, 2007년완료예정) 등이 있으며, 건축사가 西澤大良는 이들을 일본 최후의 모더니스트로 꼽고 있다.

5)정기용, 무주프로젝트 : 지역공공건축의 이론과 실천을 위하여, 이상건축 2002.06, p.102

6)長谷川裕子, 美術館における新しい空間概念, 新建築 2004.11, p.79

7)西澤立衛, 都市の空間 金澤 21世紀美術館とバレンシア近代美術館, 新建築 2004.11, p.60,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의 안내 책자 중에서(카나자와시의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문화를 높고 이것의 파급효과에 의해 주변상점가와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림 2>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의 배치도

### 3.3. 평면개념

#### (1) 공간구성

미술관의 내부 평면 길이는 직경 113m, 길이 315m의 정원(正門)이다. 이 정원은 강한 완결성을 나타내며 외부의 정원과 연결된다. 즉 부지 중앙에 동근 것을 배치함으로써 그 이외의 요소들은 대지에 강하게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술관의 평면구성은 독특하며, 시민교류를 위한 교류지역과 미술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구성을 볼 때 원의 중앙부는 미술관지역이며, 원의 주변부분은 무료지역인 시민교류지역이다.

내부 공간의 구성(1층)은 각종 크고 작은 전시실과 광원(光園), 강의홀, 도서관, 시민전시실, 휴게 공간,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지하층은 주차장과 극장, 회의실, 시민전시실, 수장고, 반입구 등으로 되어 있다. 미술관지역은 모두 19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전시실은 높이와 바닥면의 중흥비가 각기 다른 비례로 디자인되었다. 이 전시실들은 조금씩 간격을 가지고 각기 분리되어 있다. 이 간격은 통로(복도)로서 사람들이 전시실에서 전시실로 이동할 때 외부의 풍경과 교류지역의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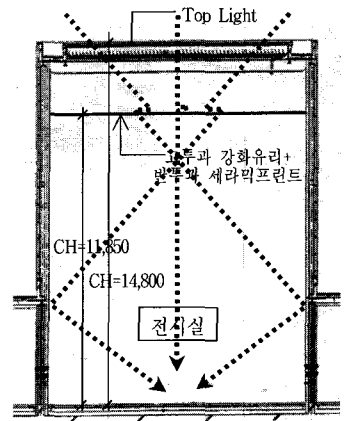
또한 역으로 교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시실 볼륨과 볼륨 사이로부터 미술관 내부의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건물의 끝에서 끝까지 볼 수 있는 관통복도(외부거리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4개 있으며, 내부로 자연광과 외부의 풍경을 끌어 들인다. 이것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밝으며, 건물의 중심부에도 밝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미술관의 내부에는 4개의 중정(광원, 내부정원)이 존재한다. 중정은 내부길이가 깊은 원형시설 속에 바람과 빛을 넣어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위감을 잃을 땀 한 내부공간에 있어 랜드마크(심볼)적인 역할도 한다.<sup>10)</sup>(그림 4 참조)

9)西澤立衛, 都市의空間 金澤 21世紀美術館とバレンシア近代美術館, 新建築 2004.11, p.58, 이 미술관은 원래 제안(proposal) 설계경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때 생각했던 것은 “건물이 등글다”라는 것과 “교류지역과 미술관지역이 일체화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것이었다. p.60(妹島和世), 제일 처음 평면이 일그러진 원이었던 것은 배부의 전시실(상자)을 배치했더니 그러한 형태로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점점 곡면 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정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10)西澤大良, 日本의 建築空間, 新建築社, 2005.11, p.350

#### (2) 빛의 연출

건물 내부는 광원과 전시실의 천창채광<sup>11)</sup>에 의해 넓고 깊은 빛이 실내에 유입된다. 중앙부에 있는 미술관지역의 전시실은 톨라이트방식의 유리 천창으로 되어 있고, 전시실 내부에서 작품을 볼 때도 자연광에 의해 외부 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빛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내적, 심적 영향을 미친다. 전시실의 빛은 톨라이트를 통해 들어오며, 이 빛은 고투과 강화유리에 의해 걸러져서 내부로 유입된다.(그림 3 참조) 실내 공간은 밝으며, 외부의 빛, 전시실 내부의 빛, 이 중간에 있는 빛 등으로 다양하다. 전시실 내부는 외부 상태에 관계없이



<그림 3> 전시실 단면도(빛의 유입)

300lux의 균질한 밝기가 유지된다. 자연광과 인공광(간접조명)의 공존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 가능한 공간은 자연과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빛은 사람들의 물리적인 신체감과 정보화되어진 가상적인 신체감을 단절시키는 것이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것이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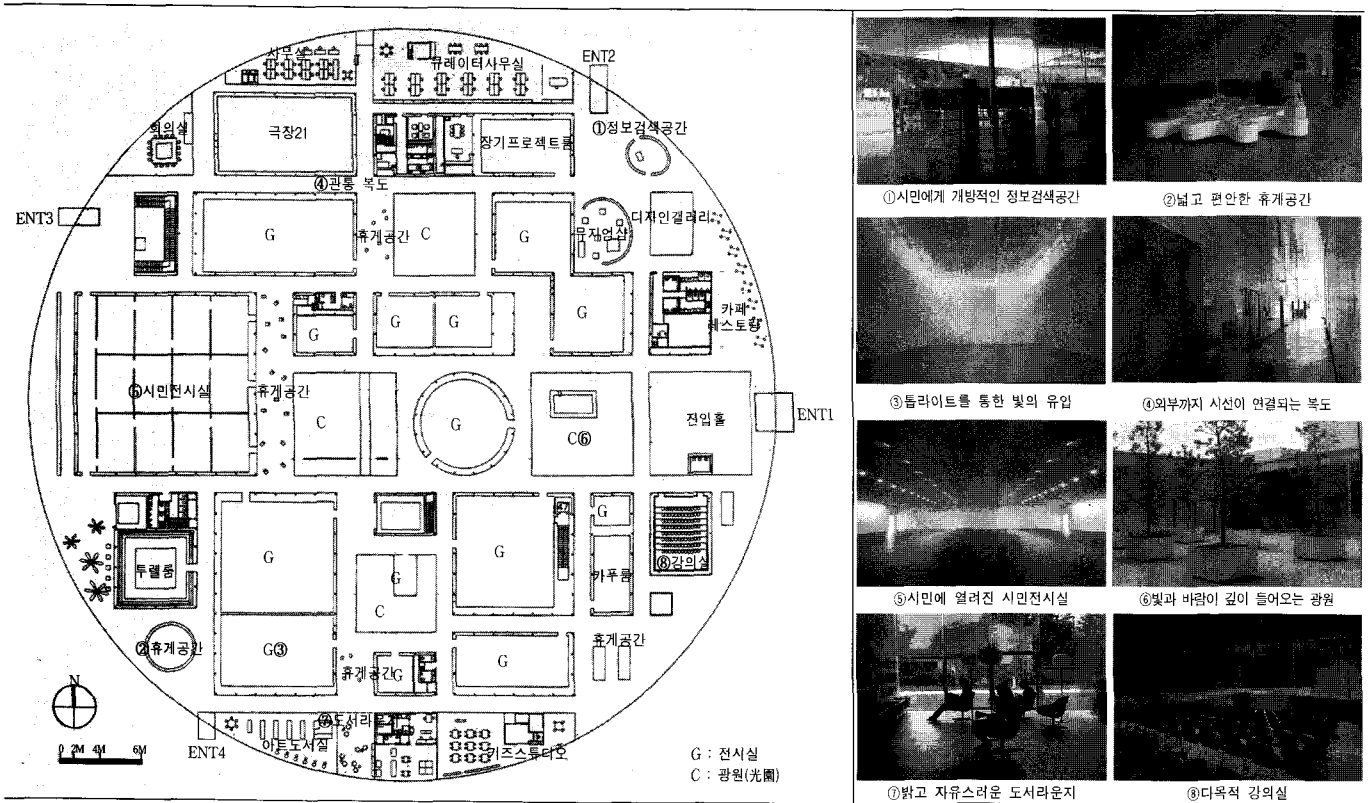
### 3.4. 입면 및 형태개념

건물은 수평적이며 지붕은 크고 작은 상자모양의 입방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접건물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지만 주변 경관을 거스르지 않은 형태이며, 장 스펀이지만 위압적이지 않다. 오히려 부드러운 동근 원과 높낮이 각기 다른 지붕의 상자들로 인해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비슷한 형태이며 건물의 고정된 정면이나 측면, 배면이 없는 것도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외장은 투명한 곡면유리로 되어 있다. 투명한 외관으로 인해 건물 내의 활동이 주변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개방성과 연속성을 만들어 낸다.<sup>13)</sup> 이 미술관은 유리의 특성을 잘 적용하여 개방적이며 밝은 미술관이다.(그림 5, 사진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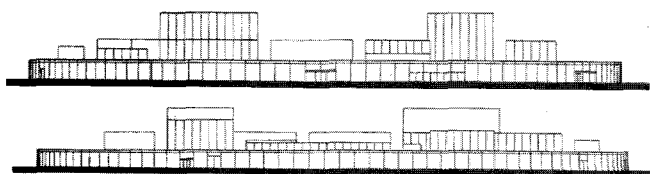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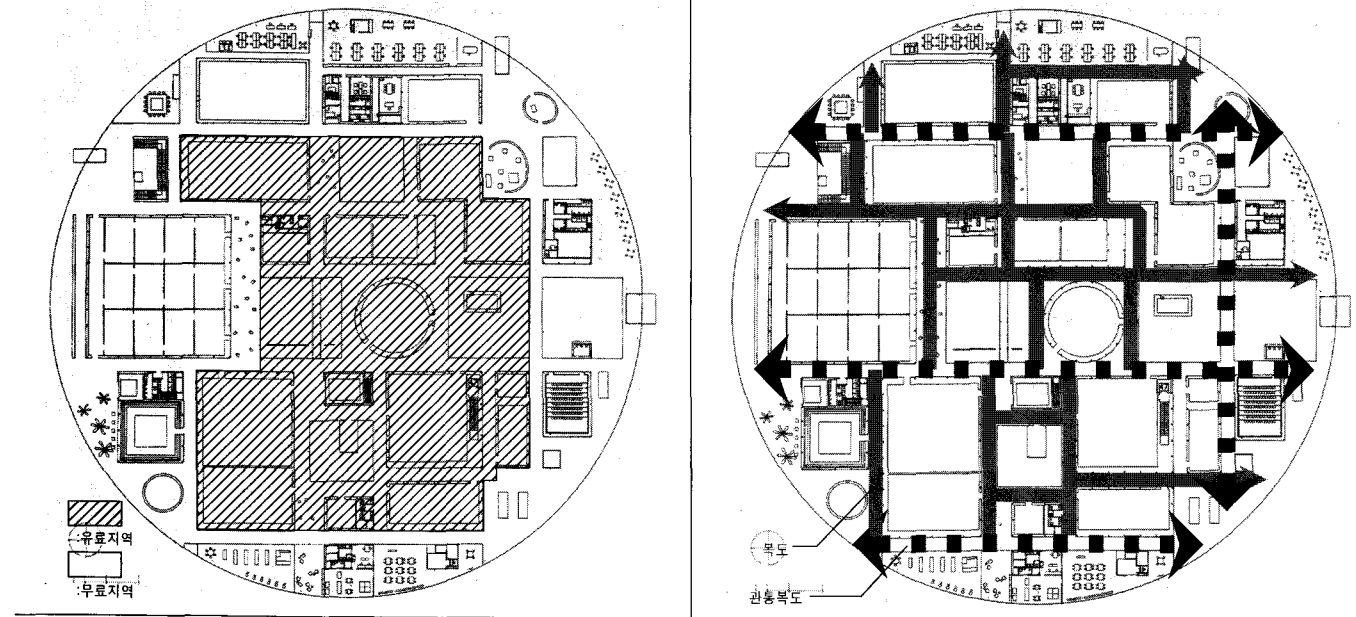
11)이관식, 현대 박물관 전시공간에서 자연광 채광방식의 선택 범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9호(통권167호), 2002.9, p.68, 천창채광방식은 전시공간이 넓은 경우 충분하고 고른 자연광을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천창채광의 경우 채광을 위한 수광 시스템의 형상 및 크기가 박물관의 외관과 특히 전시공간의 공간 성격을 좌우하는 특성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택된다. 즉 이것은 미술관의 형태적인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西澤立衛,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GA Document Vol.83, 2004.12,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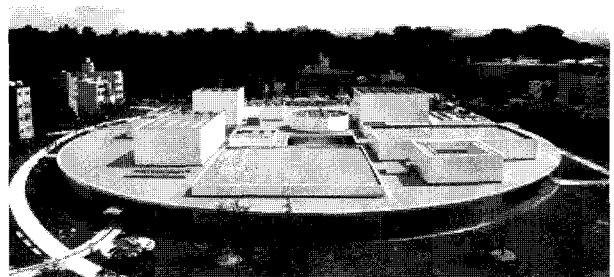
13)妹島和世, 都市의空間 金澤 21世紀美術館とバレンシア近代美術館, 新建築 2004.11, p.60, 이와 같은 사실은 妹島和世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분명히 유리는 어떤 의미에서 경계를 확실히 구분한다. 그러나 외부가 유리가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창이었다면 더욱더 폐쇄된 인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리는 반사나 투과가 됨으로써 인상이 바뀌므로 유리 자체만으로는 완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외부와 내부의 영상이 겹쳐져 보인다거나 또는 강한 반사면이 되어 오브제와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4> 1층 평면도 및 공간구성 특성



<그림 5> 동측 입면도(위) 및 북측 입면도(아래)



<사진 2>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의 전체전경

## 4.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의 공공성과 의의

### 4.1. 공공성 표현

#### (1) 공간적 특성

##### 1) 외부공간

###### ① 입지 및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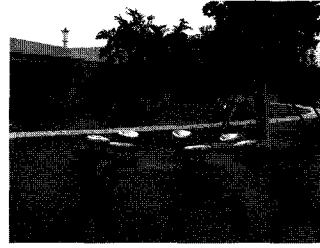
이 미술관은 부지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방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즉 미술관의 출입은 사방에서 가능하며, 이용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 또한 교통이 활발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공공시설, 문화시설과의 인접성도 높다. 공원(푸른 잔디밭) 가운데 자리 잡은 미술관은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출입이 자유로워<sup>14)</sup> 마치 공원의 일부인 듯하다. 등근 평면과 출입구의 배치는 부지의 특성과 주변의 현황을 고려한 것이다.

② 연계성(접근성) 일반적인 미술관, 박물관은 티켓을 구입해야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미술관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건물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무료지역과 유료지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의 공간적 구성과 형태는 매우 개방적이며 투명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다.<sup>15)</sup>

미술관으로 출입하기 위한 네 개의 출입구는 사용자 출입의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이다. 특히 등근 평면적 특성에 부합되게 주변공원과 카나자와 시청사 등 어디에서라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부지와 주변 특성을 살린 배치로 인한 연속성과 접근성은 양호하다.

###### ③ 외부공간구성

이 미술관은 설계자의 의도처럼 마치 공원이나 광장과 같다. 외부는 조각예술품(어린이 놀이물, 벤치 등)과 접근보행로, 다실, 프로젝트 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푸른 잔디밭과 접근보행로는 마치 공원 같은 느낌을 주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사진 3, 4 참조)



<사진 3> 외부의 휴게공간



<사진 4> 조형물과 벤치

##### 2) 내부공간

###### ① 평면구성

내부평면은 단순한 기하학적 조합에 의해 크게 전시공간과 주민교류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공적공간인 주민교류공간은 아트 도서실, 키즈 스튜디오, 정보검색 공간, 강의홀, 휴게 공간 등이다. 이러한 공적공간은 만남의 공간으로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기존의 미술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장점이다.

그리고 전시실과 전시실을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통로(迷路)를 한정하지 않고, 회유성(回遊性)을 높여 자유로운 동선흐름이 가능하여 관람객의 능동적 의지와 움직임을 확대하였다. 대규모의 전람회의 경우는 미술관지역 전체를 전람회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며, 소규모 전람회 때에는 2, 3개의 전시실만 전시공간으로 가능하다. 이것 이외에도 무료지역을 개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람회 규모와 성격에 대응하여 미술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프트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유연한 형태의 미술관이 되도록 하였다.<sup>16)</sup>

하나하나의 방(실)은 독립되며, 다양한 비례를 가진다. 이것은 다양한 작품과 미디어를 사용한 작품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룹전의 경우 하나의 작품 인상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는 기억과 인상이 과도한 오염을 미치지 않음으로 관람자의 명확한 시각체험을 보장하는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즉 실내 볼륨의 다양성에 의해 표현의 다양성(variation)을 유연하게 고려하였다. 실내는 장식이 없는 미니멀적인 느낌이며 건물전체, 공간전체를 작품이 돋보이도록 밝게 처리되었다. 전시실의 바닥은 일반적인 플로링으로 마감하지 않고 표면을 강화 처리한 콘크리트로 마감하였으며, 밝고 투명한 벽체는 공간체험에 강한 인상을 주는 요소이다.

###### ② 공적공간 확보

이 미술관은 국제박물관회의(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 ICOM)가 정의하고 있는<sup>17)</sup> 미술관의 기능을 충실히 만족시키고 있다. 내부에는 주민을 위한 공적공간을 넓게 배려

14) Leandro Ellich, 都市の空間 金澤 21世紀美術館とバレンシア近代美術館, 新建築 200411, p.61, 이 미술관의 개념은 자유롭고 독창적이다.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고 구속받지 않는다. 전시실은 독립되어 있어 각각의 개별 체험을 할 수 있고, 전시실의 출입은 매우 자유롭다. 전부가 개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험은 수영과 비슷하다. 수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마다 얼굴을 내밀고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김광현, 건축과 공동성, 이상건축 200012, p.106, "주택과 광장과 미술관이라는 수많은 시설이 왜 생겨났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근본을 향해 물음으로써, 이 모든 인간의 시설은 갱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김광현의 말처럼 미술관은 시민의 세균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서 그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16) 西澤立衛,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GA Document Vol.83, 2004.12, p.83

17) 국제박물관회의(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 ICOM)에 따르면 미술관은 일반 대중의 오락과 교육을 위하여 공개, 전람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항구적 건물이다.

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주민 교류와 주민의 문화 창작 활동의 공간이며, 집합적인 경험을 나누는 장소로서 중심성을 수용<sup>18)</sup> 하고 있다.

그 중 시민전시실은 1층과 지하 1층에 있으며(면적 1,458㎡) 일본 내 최대급 규모이다. 시민의 창작활동의 발표와 감상의 장으로서 회화, 조각, 공예, 그림, 사진, 꽃꽂이 등 폭넓은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트 도서관은 미술, 건축, 패션, 음악, 디자인, 사진, 영화 등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들부터 성인까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의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으며, 자료 검색과 인터넷을 통해 최근의 정보 얻을 수 있어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하다<sup>19)</sup>.

## (2) 형태적 특성

### 1) 경관적 요소(측면)

미술관은 지상 2층의 저층형 건축물이며,<sup>20)</sup> 형태적 특성은 미스적 추상적인 골조구조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미스가 추구한 Less is more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sup>21)</sup> 건축부지의 레벨은 주변 도로에 비해 다소 낮으며, 부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외부 공간의 구성과 부드러운 형태로 인해 주변 환경에 조화되고 있다. 이 미술관은 하나의 둥근 원이다.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적인 중심과 주민의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독특한 형태로 인해 경관적 요소<sup>22)</sup>와 랜드마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8) 최윤경, 미술관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2권6호, 1996.6, p.35. 중심성을 수용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중심공간은 전시관람공간보다는 휴식이나 대기 등의 집합적인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다. 중심성 부정의 미술관의 공통점은 비전시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절제를 들 수 있다.

19) 妹島和世, 都市の空間 金澤 21世紀美術館とバレンシア近代美術館, 新建築 2004.11, p.60, 이 미술관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의 내부정원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다. 그 외 여러 장소가 있다. 우리들로서는 전부가 서로 연결되어 "광장" 또는 "공원"처럼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 모이는 것도 가능하고 혼자자 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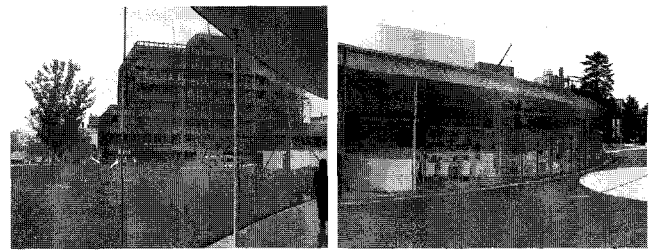
20) 妹島和世, 앞의 책, p.62, 시내 중심에서 한편으로는 커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커지 않는 부지에 서는 이 건물의 경우는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낮은 쪽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21) 佐々木睦朗, コンテンポラリー 스트럭チャー 緒言, GA JAPAN 2005/5-6호, p.131, 佐々木睦朗은 "가우디의 생명적인 공간구조를 지향하는 대표작으로 伊東豊雄의 福岡アイランドシティ中央公園・中核施設을 들고 있으며, 伊東豊雄는 이 작품은 통해 가우디가 추구한 More is less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22) 西澤立衛, 都市の空間 金澤 21世紀美術館とバレンシア近代美術館, 新建築 2004.11, p.62, 어째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는가는 것을 말하자면 아마도 건물의 배치가 크게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건축물을 시내 중심에 출현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산을 디자인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멋진 산과 멋진 산이 있다면 멋진 산은 그 지역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풍경이 되며 추억을 남긴다.

### 2) 투명한 외피

이 미술관의 형태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투명성(개방성)이다. 미술관의 외부 마감은 투명한 곡면유리(두께 4cm)이다. 이로 인해 내부와 외부는 서로 투명하게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즉 외부에서도 곡면유리의 완결성에 의해 건물 내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 든다.<sup>23)</sup> 투명한 레이어(외벽, 유료 무료지역 사이의 아크릴문, 광원의 벽 등)는 관객과 동행인 이 다름을 인식시키고 공존, 공동 창조의 장을 형성시켜 다양한 사건이 생겨나게 한다. 그리고 비물질적 외피<sup>24)</sup>는 건물의 중량감을 감소시켜주며, 조형적 역할을 대신한다.(사진 5, 6 참조)



<사진 5> 내부에서 본 카나자와 시청사

<사진 6> 외부에서 본 카페레스토랑

## 4.2. 가치와 의의

### (1)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

건축의 고유한 의미란 기능과 같은 단순 논리가 아니라 그 시설을 성립하게 하는 기반과 공공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 디자인은 사회적 언어(social language)이다.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이 지역미술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새로운 컨셉과 컨셉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자와 클라이언트의 협의와 노력의 산물로 이루어진 것이며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세밀한 스터디와 의론, 협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이 "물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풍경"<sup>25)</sup>을 어떻게 아름답고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일치되었다. 이러한 공간 만들기를 목표로 미술관의 스텝, 건축가, 아티스트가 삼위일체가 되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은 3M(Man: 개인주의, Money: 자본주의, Materialism: 물질주의)에서 3C(Coexistence: 공존, Collective intelligence: 公有知, 共働, Conscience: 의식)로 이행을 컨셉의 핵심으로 하였다.<sup>26)</sup> 이것은 상호 참가형, 함께 창조

23) 伊東豊雄, 新 現代建築を考える ○と×, GA JAPAN 2005/9-10, pp.33-34

24) 유진상, 움직임미술과 현대건축 외피 구축방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8호(통권166호), 2002.8, p.138, 비물질적 외피는 순수한 조형적 의미 외에도 내부공간 확보와 빛 컨트롤이라는 기능적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외피가 내포하는 공간을 더 내밀하게 해 시각장이 형성되는 깊이감을 획득한다.

25) 長谷川裕子, 美術館における新しい空間概念, 新建築 2004.11, p.79

26) 長谷川裕子, 앞의 책, p.79

하는 공동형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 (2) 시민 문화 수준의 향상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은 예술 작품의 감상을 통한 즐거움 제공이라는 목적과 예술 향유의 혜택을 일반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즉 현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가의 업적을 고양시키고, 지역 문화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은 이상과 같은 미술관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의도가 선행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문화의 중심 장소로서 지역 문화의 발전과 보급의 기지와 같은 존재이다. 또한 미술관의 개방적인 공간구성과 시민을 배려한 개념을 통해 시민들에게 예술과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 (3) 시민의 열린 휴식처

이 미술관은 새로운 장소적 개념을 보여준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미술관은 도시의 광장과 같으며 시민의 휴식처이다. 미술관의 접근은 자유스러우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술관으로서 예술의 일상생활로의 침투를 가능케 하는 “일상적인 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미술관의 관념을 탈피하여 문화와 교류, 휴식공간의 공존으로 열려진 문화 예술과 여가의 장소로서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

## (4) 지역의 아이덴티티

이 미술관은 카자자와시의 전통적인 동네 거리(街路)의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내부공간 구성(전시공간과 통로 부분)에 도입하였다.<sup>27)</sup> 즉 지역 도시건축의 환경적 특성을 건축적 표현을 통해 지역성을 표현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 이러한 통로의 역할은 여러 개의 비례(proportion)를 가진 전시실은 연속되지 않고 어느 정도 사이 공간(간격)을 두고 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벗어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다. 넓은 공적공간을 내·외부에 확보하였으며, 접근의 용이성과 시민 이용의 편의성, 적극적인 개방성을 고려하였다. 둘째, 평면계획은 주민교류지역과 미술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부의 외곽부분은 모두 주민 공유공간인 주민교류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주민 공유공간은 시민전시실, 아트 도서실, 키즈 스튜디오, 휴게공간, 정보검색공간 등으로 예술과 문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시민 및 어린이를 배려한 넓은 공적공간의 확보하였다. 넷째, 외부 형태는 단순하면서도 주변과 조화되며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완결성이 강한 형태이며, 투명한 곡면유리 외피에 의해 개방적이며 밝다. 다섯째,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은 지역사회의 공공영역에 접목되어 시민의 다양한 이해를 담아내고, 지역 시민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고 가꾸어지는 공동체적 공간이다.

## 참고문헌

1.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2
2. 정기용, 무주프로젝트 : 지역공공건축의 이론과 실천을 위하여, 이상건축 200206
3. 이승환·이영수, 생태적 특성을 적용한 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3권 제1호, 2003.4
4. 유진상, 움직임미술과 현대건축 외피 구축방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8호(통권166호), 2002.8
5. 박정태·김용승, 최근 미술관 공간구조의 다양성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12호(통권158호), 2001.12
6. 이관석, 현대 박물관 전시공간에서 자연광 채광방식의 선택 범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9호(통권167호), 2002.9
7. 최윤경, 미술관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2권6호, 1996.6
8. 日本의 建築空間, 新建築社, 2005.11
9. 新建築, 200411, 200409, 200403
10. GA JAPAN 2001/11-12, 2004/7-8, 2005/5-6, 2005/7-8
11. GA Document Vol.83, 2004.12
12. 김광현, 건축과 공동성, 이상건축 200012
13. <http://leo.nit.ac.jp/~ito/>

<접수 : 2005. 10. 31>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 문화시설인 미술관의 역할과 의미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공공성의 건축의 공공성 개념 등을 정리하여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건축개념과 특성, 공공성 표현과 미술관의 가치와 의의 등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나자와 21C 현대미술관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27) 이와 같은 사실은 伊藤用一(일본공립대학 건축학과) 교수의 답사여행기(배치 스타일은 옛날 카나자와의 거리풍경에서 도로와 골목길을 걸으면서 가로를 따라 집, 상점, 길을 살짝 들여다보고, 이 새로운 발견을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시켜 것으로 생각된다. <http://leo.nit.ac.jp/~ito/>)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장 조사시 미술관 관계자의 설명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